

우리 사회와 종교

— 이론적 관심의 문제 —

김 종서(서울대 · 종교학)

학문적 관심에서 우리 사회의 종교를 보았을 때 실감하게 되는 것은 우선 이렇다 할 만한 우리의 이론들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1980년대 후반 이후 종교 사회학적 논의들이 급증하면서 서구적 이론들을 소개하거나 그들을 가져다가 한국적 종교 현실에 적용시켜 보려는 의도는 적지 않았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종교 현상들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우리 자체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체계화된 종교 사회학적 이론은 사실상 별로 없는 셈이다. 비교적 한국적이라 할 민중 종교 운동에 관한 종교 사회학적 연구들조차도 사회학적 시각이 거의 없이 신학 논문과 거의 구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던 신흥 종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목만 종교 사회학적일 뿐 사실상 사회사 논문이나 종교 철학 논문이라고 분류될 수밖에 없는 글들이 대부분인 셈이다.

이러한 이론적 빈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이론적 연구의 기반

이 될 가설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현상 진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적 사실들에 대한 측정이 잘되어 있지 못함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종교 인구에 관한 통계가 나타난 것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1907년에 절과 교회의 숫자가 통감부에서 실시한 통계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고, 1908년부터는 각 종교의 신도수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1910년이후로는 각 종교의 신도수가 세부 종파별로 분류 조사되고 또 지방별 분포까지도 고려됨과 동시에 심지어는 누계 조사표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조사 통계들은 조사 방법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신뢰도나 타당도가 의문시되고, 오직 불교, 기독교, 신도(神道)만을 공인종교라 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종교 곧 유교나 도교 및 그 당시 한창 새롭게 일어났던 여러 신종교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유교 및 향사에 대한 조사와 이른바 당시 '유사 종교'들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인종교들처럼 정기적으로 철저히 된 것들이 아니었다.

해방 후에는 경제 기획원 조사 통계국에서 1060년대부터 종교 관계의 통계를 통계 연보에 포함시켜온 것과 더불어 각 종단의 보고에 기초한 문화(공보)부의 「종교단체현황」이 이삼년마다 통계 자료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외에 정부 당국의 조사로는 1983년의 '시도상주인구조사'가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한국 역사상 유일무이의 종교 인구에 대한 전수 조사라 할 1985년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는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라는 명목 척도에 의한 단일 항목의 질문을 포함했었는데 총인구 가운데 종교 인구가 42.6%로 나오고, 이 가운데 불교인이 약 800여만 명, 개신교인이 640여만 명, 천주교인이 180여만 명 그리고 유교인이 50여만 명 정도로 측정되었다.

한편 정부의 종교 인구 통계 이외에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종교 측정론 분야의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역시 한국 꺄럽 연구소의 종교 조사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특히 세련된 자사 방법론과 국제적으로 고려된 설문들을 사용하여 실시된 비교적 정밀한 표본 조사들이었기 때문이다. 1983년과 1989년에 전국에 걸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행해졌었다. 그런데 꺄럽 조사로서 비록 서울 지방의 400명의 표본만을 설정하여 규모는 작았지만 측정 방법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조사가 1984년 실시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종교들이 기독교에 비하여 신도들의 성원 의식이 약한 것에 착안하여 단순한 명목 척도에 의한 자기 확인 방법을 탈피하여 간접적인 성원 확인의 방법을 시도했었다. 그 결과 유교인이 1985년의 전수 조사에서는 자기 확인되었던 것이 50여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조상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는 등 유교적인 생활 패턴 속에 살고 있다는 소위 '실천유교인'은 전 인구의 약 91.7%인 것을 밝혀 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통계 조사들에 병행하여 각 종단의 조사들도 여럿 있었다. 보기를 들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1980년 발간한 「한국교회 100년 종합 조사연구보고서」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에서 1985년 발간한 「사회조사보고서」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은 이런 교단들 자체가 통계적 조사에 근거한 실증적 자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교단 내의 조사 방법에 대한 축적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들이라 여겨진다. 이에 덧붙여 한국 신종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한국 종교 학회에 의해 1985년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보고서로 나왔다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대체로 이런 정도의 종교 측정이 있어 왔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측정이 시작된 셈이고, 아직도 너무나 단순한 명목 척도에 의존하거나 종교 인구 조사 자체를 넘어서 다양한 종교 현상들에 대한 측정이 활

발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엄밀한 이론적 연구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 하겠다.

한편 우리 사회의 종교에 대한 이론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설 정립을 위한 기초적 현상 진단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설 자체에 대한 철저한 경험적 검증과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자주 특정 종파의 급성장이나 세속화 및 다원화에 연관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느낌”에 의한 순수 가설의 차원을 못 넘고 있다. 엄밀한 검증 과정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 종교 사회학의 주류를 차지해온 이른바 “번역 종교 사회학”의 한계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경험적 조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서구 이론을 소개나 하고 또 억지로 적용해 보려 하다보니 철저한 검증 과정이 불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곧 서구 이론 그 자체를 더 중시하고 한국적 종교 현상 자체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말이다.

보기를 들면 종단 보고들에 근거한 신도수는 해마다 인구 증가율을 훨씬 압도하여 1988년에는 총인구보다 많은 4300여만 명에 이르렀었다. 물론 이런 숫자는 서구적 안목에서는 종단에 따라 정확한 신도수를 모르거나 또는 교세를 시위하기 위한 의도로서만 생각되어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되고 심지어 해외의 학술적인 논의에서는 거론하기조차 창피한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반면에 한국 종교 자체의 중층 다원성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현상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인은 유교인이면서 불교인이고 또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점이 한국적 종교 현상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진정한 한국적 이론화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1980년대 들어서 세속화와 종교 다원화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개는 세속화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이기보다는 각종 세속주의적 현상들에 대한 고발성 논의일 뿐이거

나 서구 이론의 소개에 불과했었다. 그리고 세속화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에서는 매우 강하게 보수적 종교 단체들의 성장 운동이 확산되어 세속화 논의들의 무색하게 만들어 왔으나 이 부분은 늘 간과되기가 일쑤였다. 종교 다원화의 경우도 미국의 종교 다원주의 논의는 주로 기독교 안에서 다른 종파들 사이의 종파적 다원주의에 관한 것들이고 한국에서처럼 완전히 다른 종교들 사이의 종교 다원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차별 적용이 있었다.

또 종교 단체들의 법적 지위의 문제를 다룰 때도 대체로 공법인화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나 지나칠 정도로 자유 방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위주로 한 이론적 논의는 우리 사회에 별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은 유사하더라도 종교 단체의 약 80%이상이 법인화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를 총종교 단체의 0.5%도 법인화되어 있지 못한 한국의 특수 상황에 적용 시켜 보려는 시도들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이른바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도 단순히 서구에서처럼 국교 금지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에서는 세력이 강해진 개신교와 카톨릭의 정치 참여 욕구와 국가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타파해 보려는 국민들의 영적 복지의 이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 의식이 아직도 지극히 중요한 우리 사회 속에서 조상 숭배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려 함은 서구적 이론에만 맡겨질 수 없는 문제이다. 심지어 미국만 하더라도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에 있어서 종교가 개인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사뭇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도 무당의 유형을 이해하려면 일제 시대 한강을 기준으로 하는 남쪽 북쪽의 무당 분포의 차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또 오늘날 개신교의 각 교파별 교세를 이해하려면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독특한 선교 지역 분할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다. 단순한 서구 종교 조직 이론의 적용에 앞서서 한국에서는 교회들의 폐쇄적 개

교회주의나 급속한 중산층화 그리고 문중 제도에 기반을 둔 한국 불교의 조직에 대한 전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이 없이 서구 이론들만을 기초로 하니 결국 우리 사회의 종교 현상들은 이론적 적용조차도 거부해 왔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종교 현상에 대한 이론화 문제에 즈음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소위 “종교적 관심”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종교 사회학자들이 주로 사회학쪽에서 훈련된 사람들이라서 사회학적인 면에서는 매우 풍부한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들이 종교 자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이해는 매우 약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종교 자체에 관한 인용은 대체로 학부 저학년생의 개론서 수준을 못 넘어가면서 사회학적 이론은 최근 학술 잡지의 첨단 주장들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불균형이다. 보기를 들자면, 아무리 종교 집단에 관한 이론을 많이 알아도 불교의 승가(Sangha)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슬람교의 움마(Ummah)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한심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세기 후반에 동학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이유를 오직 기존의 한국적 종교 상징 구조의 틀로부터만 설명하려 한다면, 물론 그런 원론적인(textual) 주장의 문제는 왜 하필 동학이 그때 그 장소에서 발생해야만 했었는가 하는 것을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역사적 사회 경제적 논문들이 해 왔듯이, 당시 열강의 침략상이나 이에 대한 반응 양상 등만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거나 또 대내적인 신분 질서의 붕괴로 인한 아노미 현상 등만을 거론하는 것은 불충분한 셈이다. 곧 이러한 상황적(contextual) 설명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데 왜 하필 동학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왜 다른 종교로는 그러한 것이 표출될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종교 현상에 대한 이론화는 상황적 설명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원론적인 설명이 동시에 요청된다는

말이다. 또 한국의 경제 성장과 유교의 문제도 그렇다. 그저 유교라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불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적 유교의 독특한 보수적 상징 체계의 발달 과정이 먼저 정확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학적 환원주의(sociological reductionism)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종교 사회학 문헌들 속에서 종교는 사회 현상의 한 부수 현상 정도로 환원되어 버리고, 종교 공동체의 진짜 핵심적인 면들은 종종 간과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등장해온 개신교 성장이나 신종교 발생에 관한 종교 변동론적 연구들은 거의가 다 지나치게 결정론적 입장에서 종교의 독특한 상징 구조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여진 것들이다. 현대에는 세속화나 종교 다원주의조차도 사회학적 신화(myth)에 불과하다라는 과감하고도 의미심장한 시각들이 주장되어 지고 있음은 상기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여 이론화가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복잡한 문제는 다양한 자료의 축정이 늘어 날 수록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더구나 종교 문제는 개입 변수들이 많아서 쉽게 서구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한국 종교 현상이 이론적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적 독특성이 잘 고려된 새로운 이론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겠다. 덧붙여, 우리 사회의 종교적 이론은 너무 서구 사회과학적 형식에만 집착해온 느낌이 있다. 종교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조차도 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적 의미를 지닐 때 더욱 설득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